

‘김영록號’ 취임기획단 밀그림 공개

지역발전 견인할 높은 목표 의지 드러나
‘인구 200만 회복’ 4년 뒤 부메랑될 수도

김영록 전남도지사 취임준비기획단은 9일 민선 7기 전남도의 밀그림을 공개했다.

이건철 김 지사 취임준비기획단장은 이날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선 7기 키워드, 전남신성장동력산업, 중요공약 등을 제시했다.

기업 1000개 유치와 200만명 인구 회복 등 다소 높은 목표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지역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로 일컬지만 4년 뒤 평가에서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민선 7기 키워드
민선 7기 키워드로 도민제일주의와 일자리, 인구 200만명, SOC, 최대 국비확보, 최고 수준 청렴도 등을 제시했다.

도민제일주의, 도민 지상주의를 위해 1주일에 반드시 1회 이상 도민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도민청원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전과 협력해 에너지기업 중심으로 임기 내 1000개 기업을 반드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혁신도시원 800개와 여타권역에서 200개를 유치한다는 목표이다. 한전은 에너지밸리 조성 관련 500개 기업 유치 목표를 진행중이다.

인구정책총괄 플랫폼을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 귀농·귀어·귀촌을 토대로 2030년 인구 200만 명 목표를 설정했다.

무안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 및 호남고속철 2단계사업 조기완공, 남해안철도(목포~보성) 전철화

사업,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 등을 임기 내 완공하거나 실적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2020년부터 역대 최대 국비 확보와 함께, 2020년 청렴도 1위 목표로 ‘부패없는 전남’을 반드시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전남의 성장동력산업
에너지신산업과 바이오산업이 제시됐다.

전남은 에너지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빛기름혁신도시 지원발전센터’를 구성, 운영한다.

500개 이상 기업이 유치될 경우 산단을 추가 개발하고 빛기름혁신도시 R&D 강소특구 지정 등을 통해 빛기름에너지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한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1차적으로 대선공약인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산업밸트’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백신면역치료연구원(화순)을 설립한다는 목표이다.

국립 심뇌혈관질환센터 정성 유치를 통해 생명의약산업밸트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전남관광공사 설립과 세계적인 서남해안 관광휴양 벨트

일본 지방관광 활성화 주역인 ‘관광지경영조직(DMO)’를 벤처마

김해 전남관광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선공약기도 한 세계적인 서남해안 관광휴양밸트 구축을 위해 ▲목포~부산 간 해안관광도로 및 서남해안 일주도로 건설 ▲목포를



민선 7기 김영록 전남도지사 취임기획단은 9일 전남 7대 발전전략과 민선 7기 키워드, 공약 등 그동안 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건철 취임기획단장은 이날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했다.

황화해권 관광 및 휴양 거점으로 육성▲이순신 호국거점을 중심으로 한 호국·관광벨트 조성▲여수 세계비빔밥장 컨벤션센터 건립 및 국제회의도시 지정 추진▲중국인 관광객 인비운드 전답여행사 육성 등이 제시됐다.

장기 과제로 중국인 전용관광지인 차이나아일랜드를 조성하고 신혼여행의 국제관광화 추세에 맞춰 중국과 아시아권 신혼부분 전용관광지인 하니문파리다이스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에코 전남
에코 전남을 목표로 ‘(가칭) 국립 애코생태물공원’을 건립해 글로벌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한편 호남지역의 새로운 경제성장의 모멘텀 확보를 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파리의 에펠탑, 싱가포르의 보타닉가든처럼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남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기획단은 전남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난대 및 이열대 식물자생이 가능하고 국유지 포함 토지 확보

수월, 중국 일본 등남아 관광객 등 글로벌 수요뿐 아니라 국내 항공 및 크루즈선, KTX 이용 접근성이 국내 수요가 충분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건립방법과 테마 등을 지역 내외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보고서는 민선 6기 평가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아쉬움으로 남았다.

기업유치 1000개 유치나 2030년 까지 인구 200만명 회복 목표는 새로운 전남 건설을 위한 김 지사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인구 목표 등은 실현성이 있어서 미지수여서 4년 뒤 김 지사가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이 할 수도 있다.

이건철 취임기획단장을 “김 지사의 열정이 대단하다. 23년만에 행정가 출신 도지사가 배출됐다”면서 “그랜드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기업유치 등 현실적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중기부 광주전남청 ‘수출 성공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경이 지역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원스톱서비스로 지원한다.

중기부 광주전남청은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수출 전과정을 지원하는 ‘2018년 수출 성공 패키지 2차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차 사업에서는 전국에서 1352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59개사 지원을 받았다.

이번 2차 사업도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미만의 내수·수출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전국적으로 900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3000만원 한도 내

에서 제공되는 홈페이지·카탈로그 제작 등 ‘기업홍보’, 전시회 참가·비어 매칭 등 판로개척’, 수출서류 작성·통역서비스 등 ‘수출업무’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수출성공 패키지사업에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총 190개 기업이 37억원 규모의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 받

았다.

수혜기업 중 한 곳인 고려오토론(주)은 아시아·유럽지역 국제광통신 전시회에 참가해 터키, 베트남 비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광커넥터 340만불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

는 18일까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suseubauch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은홍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고흥·장성·장흥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화 : 062-224-5800

e-mail : ihoa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 | |
|----------|----------|
| ■ 법인 설립 | ■ 기장 대리 |
| ■ 양도상승증여 | ■ 간설면허신청 |
| ■ 기업 진단 | ■ 외부 감사 |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촉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창업상담>>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동구, 아파트 전기요금 아껴 경비원 고용 유지

광주 동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에 운림리아트아파트가 광주·전남 최초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운림리아트아파트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경비원 채용규모를 1명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태양광을 설치해 아파트 공용전기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다면 절감한 금액을 경비원 인건비로 활용해 고용을 대체 유지하겠다고 동구에 건의했다.

이에 동구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공동주택 태양광 공급 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예비설계 및 견적서를 작성해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광주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광주시와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서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SNS캠페인

광주 서구는 ‘음쓰? 음쓰! 다 먹고 SNS에 인증하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캠페인은 ‘음식물쓰레기 없다’를 줄여 이를 불여겼으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광주시의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에 맞춰 기획됐으며, 주민주도형 참여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방법은 음식을 먹기 전 사진과 잔반 없이 다 먹은 후 사진을 촬영해 장소와 '#음쓰음쓰'나 '#광주서구'를 해시태그해 개인 SNS에 올리면 된다.

서구는 계시사진의 적정성·호응도 등을 고려해 매달 20개의 우수 게시물을 선정해 문화상품권 2만원권을 지급한다.

남구 청소년도서관, 치매극복 선도 도서관 선정

광주 남구 청소년도서관이 ‘치매극복 선도 도서관’으로 선정됐다.

남구는 보건복지부 종양치매센터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서 청소년도서관이 ‘치매극복 선도 도서관’으로 뽑혔다고 9일 밝혔다.

치매극복 선도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치매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서관 공간에 치매 관련 도서와 자료를 배치한다.

청소년도서관에서는 치매 관련 서적 50여권이 배치돼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서적과 간행물을 추가로 비치할 계획이다.

북구, 제11회 북구 구민상 후보자 접수

광주 북구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모범구민을 발굴·포장한다.

북구는 오는 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11회 ‘북구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접수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경제 ▲지역사회봉사 ▲문화예술체육 ▲효행 ▲장애인·장애인 등 5개 부문을 시상한다.

추천대상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구민 각 1명씩 부문별로 선정한다.

단, 지역경제와 문화예술체육 부문은 북구에서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자로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광산구, 무더위쉼터 등 폭염안전망 구축

광산구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주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더위쉼터를 지정·운영하기로 하고, 주요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 폭염안전망을 구축했다.

광산구는 먼저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해 시원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21개동 320곳의 무더위쉼터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로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시민이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고 가로수·건물 등이 없는 횡단보도 주변 22개소에 36개 그늘막을 설치해 9월 말까지 운영한다.

임형택 기자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노동법 기업컨설팅

▶산재업무대리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자문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